

## 人 間 化 라는 말

요즘 W·C·C·에서는 곧잘 인간화라는 말을 쓴다. 어떻게 생각하면 극히 당연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되는데 현대 문명의 질환이 있다고들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다운가? 하는 반문이 나오게 마련이다. 아니 사람이 사람답게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사람이 사람다움을 희구하면서 사람답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인간 소외라는 말도 흔히 쓰인다. 사람답지 못하게 되는 현상 非人間化를 일컬어 하는 말인 것이다. 인간 소외는 먼저 짜증을 내는 데서 시작된다.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시작한 일이 어떤 계기에 부딪치면 예를 들어서 피곤하다든지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짜증이 난다. <뭘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하나?>하고 자신에게 의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사람다움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과 남이 하는 일을 비교해 보고 부러워하든지, 멸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질투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인간 소외의 제 2단계이다. 여기서 열등감이 아니면 우월감의 포로가 되고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콤플렉스의 포로가 되어버리려면 쇠사슬에 매인 노예처럼 그 콤플렉스의 악순환에서 헤어날 못한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언제나 좌절 불안을 느끼면서 이것을 무마하고 진정시키는 유형, 무형의 마약을 사용하게 된다. 이 불안 해소책 중에 소위 컷토 멘탈리티라는 것이 있다. 결국 한 신조나 한 인종이라는 규범 밑에 서로 뭉치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시

기와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다. 극단의 예가 바로 유대인인 것이다.

사회생활 속에서 느끼는 비 인간화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나와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나와 신조를 같이하는 교파 사람들끼리, 그렇지 않으면 피부색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살면 이런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자기를 그 켓토 속에 파묻어 버리고 소위 타유화되는 과정 속에서 일말의 안도감을 가지게 된다. 이 켓토에 속하지 않는 모든 외부 세력을 자기의 생존에 도전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한차례 규정해 놓고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

크게는 인종 차별, 작게는 지방색을 따지는 편견에까지, 오늘 우리 생활 속에는 이러한 사람답지 못한 요소가 수두룩히 있다.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인간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과 깊은 집착을 가진 사람으로서, 언제나 담담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사는 길이 없을까? 웅졸한 켓토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면서 늘 불안과 좌절을 느끼는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해방의 복음은 먼저 자아를 쇠사슬에서 풀어내는 복음이어야 할 것이다. 켓토의 멘탈리티에서 해방될 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